

1세대 토종 SNS 채널 '싸이월드' 문 닫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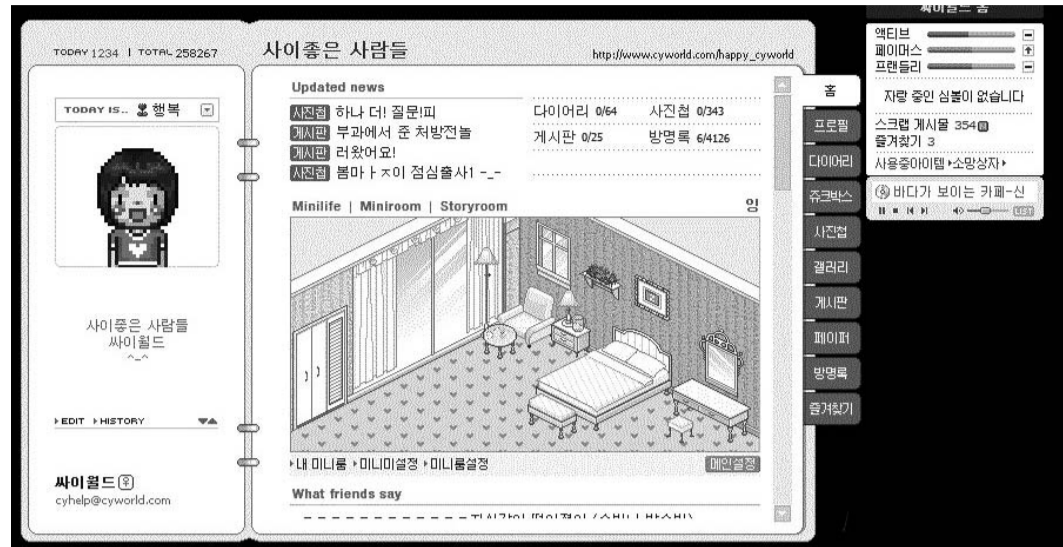
전자화폐 '도토리' 연 매출 1000억...사용자수 2000만명 폭발적 인기 페이스북에 밀려 몰락 초래...20년 전 추억의 글·사진 백업 요청 쇄도

2000년대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국산 SNS 채널 싸이월드(CyWORLD)가 최근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 현재 싸이월드는 메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으나, 로그인을 포함한 주요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시대를 풍미했던 1세대 SNS 몰락을 지켜보며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년 전 추억의 글과 사진, 메시지를 백업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음악을 배경음악(BGM)으로 재생할 수도 있었다. 미니홈피 메인페이지에서는 '미니홈피'를 꾸밀 수 있었다. 가상의 '방'을 다양한 가구로 꾸밀 수 있는 콘텐츠로, 자기 개성을 살려 다양하게 코딩한 아바타 '미니미'도 배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다. 가구와 의상, 주크박스 음악은 싸이월드 전자화폐인 '도토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다.



싸이월드 로고



2015년까지 볼 수 있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니홈피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SNS 채널 '싸이월드'는 2000년대 '국민 SNS'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문을 닫아 로그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모두의 첫 SNS, 싸이월드의 성장

1999년 오픈한 싸이월드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SNS 태동기를 이끌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싸이월드는 2007년 이용자 수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때 싸이월드는 전자화폐 '도토리' 수익으로만 하루 평균 3억 원, 연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서로 '일촌'을 맺고 개성 있는 '미니미'와 '미니홈피'를 꾸민 뒤, 다른 사람들의 미니홈피를 탐방하며 '파도타기'를 했다.

일촌은 페이스북의 '친구', 트위터의 '팔로우'와 비슷하다. 특정 글을 서로 일촌을 맺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었으며, 방명록에 한줄짜리 메시지를 남기는 '일촌평'도 적을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미니홈피'는 자유롭게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다. 게시판, 다이어리, 사진첩, 방명록 등 메뉴를 통해 추억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주크박스'를 통해 좋아하는

'파도타기' 등 싸이월드를 통해 만들어진 신조어도 있었다. 파도타기는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를 들르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일촌 관계를 맺은 지인부터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까지 다양한 이들이 대상이었다. 아바타 미니홈피를 운영·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싸이질', 싸이월드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싸이페인' 등 신조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고인 물' 싸이월드의 몰락

2010년대 들어서자, 싸이월드는 급변하는 SNS 시장 흐름을 타는 데 애를 먹으며 차츰 인기를 잃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SNS로 눈을 돌렸다. 싸이월드는 2015년 뒤늦게 '싸이홈'을 출시하기

전까지 PC 서비스를 고수했다.

싸이월드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도 새로운 SNS 흐름에 맞지 않았다. 지인들로 구성된 '일촌'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소통 구조가 문제였다. 이는 개방·참여·공유가 자유로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2011년 7월 터진 '싸이월드-네이트 해킹 사고'도 이용자를 겁박시키는 데 한몫했다. 중국발 IP를 통한 악성코드 해킹으로 이용자 3500만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실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부진을 거듭하던 싸이월드는 2013년 SK커뮤니케이션즈와 분사하고, 2016년 '프리챌' 창업자 전

제완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

이후 임금체불 등 문제로 시달리던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국제정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됐다.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거나 오랫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을 담당 세무서가 직접 폐업 처리한 것이다. 싸이월드 서버를 운영하던 K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부터 서버 이용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정의 등록 말소와 별개로 싸이월드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운영 의지를 보인다면, 폐업과 관련해 취할 조치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억년 전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뇌 구조 3차원 재구성 해보니 저주파 감지 청각기관도 있어 러시아연구팀 확인

러시아 연구팀이 1억년 전 초식공룡 안킬로사우루스의 3차원 뇌 구조를 복원, 후각이 매우 발달했고 뇌에 열을 식히는 냉각구조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청각기관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이반 쿠즈민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8일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컬 커뮤니케이션즈'(Biological Communications)에서 안킬로사우루스 비스케르티펠타 아르치발디의 두개골 내부 구조와 혈관 등을 3차원으로 복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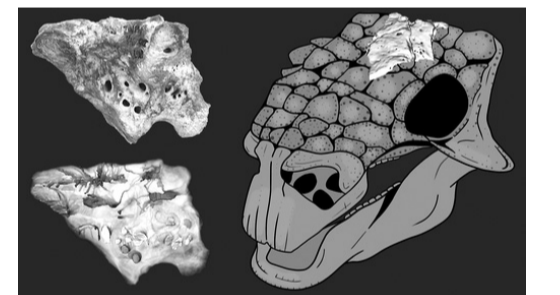
안킬로사우루스는 약 1억6000만년 전 쥐라기 중기에 등장해 6500만년 전 공룡 대멸종 때 사라진 초식공룡이다. 몸크기는 5-10m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의 거북 또는 아르마딜로처럼 두꺼운 갑옷으로 덮여 있었고 꼬리에는 딱딱한 곤봉 같은 것이 달린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매우 좋은 보존상태로 발굴된 안킬로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 파편 3점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첨단기법으로 정밀 분석해 뇌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다.

이들 화석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즈베키스탄 중부 키질롬 사막의 다르쿠르두크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영국, 미국, 캐나다 합동 고생물학 탐사팀(URBURBAC)이 발견한 것들이다.

이 지역에서는 고대 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동물 화석이 발견됐다. 이곳에서는 공룡, 이룡, 악어, 새, 포유류, 다양한 척추동물 등의 화석이 발견돼 현재도 많은 연구팀이 분석 중이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대뇌 반구의 60% 정도가 후각 신경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이 매우 발달해 사냥과 짝짓기 상대 찾기, 천적 피하기 등에서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상상도(위)와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에서 3차원으로 복원한 안킬로사우루스 뇌 화석 및 내부 구조. /연합뉴스

항간에 사는 바이러스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 찾았다

한국연구재단, 조장천 교수 연구팀

국내 연구진이 항간에 사는 바이러스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찾아냈다.

한국연구재단은 조장천 교수(인하대), 문기라 박사(인하대), 이상희 교수(명지대), 차창준 교수(중앙대) 공동 연구팀이 항간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에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확인해 '항간 바이롬 베타락탐 분해효소'(HRV)라고 이름 붙였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항간 표층수를 채취해 세균을 제거하고 바이러스만 농축했다. 핵산 추출로 130만개의 염기서열 조각을 얻었고, 이 가운데 항생제 내성 유전자 25개를 찾아냈다.

베타락탐 분해 핵심서열을 가진 4개의 유전자가 대장균에서 실제 유효한 분해효소를 만드는지 실험한 결과, 대장균이 여러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는 세균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데, 기존에는 세균을 배양하기 어려워 바이러스도 분리·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합뉴스

5G 이용자 늘지만 품질 불만은 여전

상용화 1년...가입자 300만명

통신분쟁 조정 신청 56건

4개월만에 5배 가까이 늘어

5G 상용화 1년여 만에 SK텔레콤 가입자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5G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지난 1년 동안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민원 유형은 '5G가 자주 끊긴다', '통화 품질이 안 좋다', '5G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가 부정확하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5G 기지국을 증설하고 있으므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입장과 달리 5G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무선통신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올해 1~4월 한국 이동 3사의 5G 접속 속도를 조사해보니 평균 224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쳐 미국 버라이즌(506Mbps)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는 버라이즌의 접속 가능성(하루 중에 5G 접속 시간 비율)이 0.5%에 불과해 한국 이동 3사의 30분의 1에 불과한 점, 오픈시그널이 국내 5G 속도를 해외에서 측정한 점 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G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오픈시그널 조사 결과를 활발히 공유하며 "역시 느린 이유가 있었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 5G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오픈시그널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동 3사는 접속 가능성에서 버라이즌보다 뛰어나다고 반박했지만, 국내 이동 3사의 평균 5G 접속 가능 시간 역시 하루 24시간 중에 15%인 3

~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동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동 3사는 작년에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8조54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일상이 바뀌는' 경험을 할 거라고 광고했는데, 상용화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체감할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 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비무장지대나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내보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가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5G 품질에 관해 소비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이고, 이동 3사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며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현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